



통권 51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6. 1. 16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뜻대한 아쉬움 달고 큰 희망 펼쳐갈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어렵고 바쁜 나날에서도 부담하게 억압받고 고난당하는 양심수들을 위하여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02)763-2606, 765-5282



2000년 12월 24일 발행인사

2000년 12월 24일

2000년 12월 24일

2000년 12월 24일

돌

이켜보면 지난 한 해도 술한 일들 속에 아쉬움도 많았고 가슴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다짐했던 양심수 없는 빈 감옥 만들기 희망과 분단 50년을 넘기지 말고 통일원년을 세우자던 겨레 모두의 염원이 가슴에 또하나 용이로 남으며 다시 해를 넘겨야 했습니다. 통일된 세상, 정의로운 세상, 양심수 없는 세상은 후원회 첫걸음부터의 목표였습니다. 양심수 문제의 완전 해결은 바로 이 땅에서의 민주화와 통일이요 사회정의 실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리어 겨루기 50년의 '굳어진 틀'은 너무 단단했습니다. 겨레 염원답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합의했고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을 서명발효 시켜놓았는데도 고집스런 창구단일화 등 일관성없는 통일정책이 오히려 그 역사적 합의마저 녹슬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민족의 존엄과 이익, 그리고 번영의 길을 가로막는 안타깝고 개탄스런 일이었습니다. 100년만의 큰물피해로 동포가 고통받고 있는데 구걸을 요청해와야 도와주겠다는 사고가 있는 한, 객관정세에 걸맞지 않게 긴장국면만을 강조하며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는한, 같은 민족의 남북공조가 아닌 한·미·일 공조만이 이어지는 한, 이 '굳어진 틀'은 쉽게 풀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단 50년을 넘겼다하여 주저앉아 탄식만 할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수 천년을 한핏줄로 한 문화속에 살아온 민족정기가 있고 그 어떤 외세의 침략에서도 단일 민족을 지키며 굳건히싸워 내쫓은 긍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한결같은 염원은 그것이 바로 민족존엄이고 생존조건이며 평화의 보장이

고 번영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탈냉전시대에 우리가 취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의 한결같은 외침은 '범죄자를 감옥으로, 양심수를 가족 품으로' 였습니다. 총칼로 정권을 찬탈하고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천인공로할 범죄자들이 오히려 양심수를 감옥에 가두고 애써 열심히 일해 번 돈을 도적질하고 있었습니다. 절대권력 있는 곳에 절대부패는 필연이었습니다. 학살자를 감옥으로 보내자는 요구에 국가권력은 '공소권 없음'을 선언했지만 민은 이에 맞서 즐기치게 싸워 마침내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6월항쟁에 버금할 또하나 민주투쟁의 승리였으며 묻어두려 했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정권의 불법 기구에서 제정된 반민족악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는 아직도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15때 민가협을 비롯한 나라 안팎의 양심세력이 입을 모아 주장하였기에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안학섭, 한장호 노인들이 풀려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장기수로 있는 우용각(39년), 윤용기(38년) 노인 등 350여 양심수가 이 추운 겨울, 언 방에 갇혀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난데없는 무장간첩 사건이 터지면서 애국청년지도자들이 간첩인지 알지도 못한 사람을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구속되었고, 한 평생을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이 무더기로 구속되었으며, 5·1 동맹 사건, 사노맹 재건사건, 민주노총을 준비해온 노동일꾼 등 수많은 양심수가 공안한파 속에 감옥에 갇습니다. 또한 사상



1996년을 맞으며

지도위원을

최대라던 연말사면에선 감옥에 있거나 풀려난 양심수의 이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감옥은 또한 철창 안만도 아니었습니다. 김선명 노인 등 8·15석방자 환영을 위한 민가협 주최의 문화공연에 이분들은 수백 명에 에워싸인 채 불법감금 당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보안관찰법이 존재하는 한 '철창없는 감옥'이란 오명은 벗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 분발과 노력이 올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술한 사건, 사고로 얼룩졌고 부정부패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정황이었지만 고통받는 양심수에 대한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은 더욱 두터웠습니다. 나라 안에서, 밖에서 겨레의 정 쏟아 더 큰 성원 주셨기에 양심수들에게 강한 연대감과 투혼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심수 석방운동, 민가협 장터, 목요집회, 인권 심포지엄, 양심수환영 문화공연,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등에서 일손이 되거나 행사주관자로 헌신하셨습니다. 양심수들에게 따뜻한 편지와 면회가는 일, 무연고 출소선생님을 찾아 뵙는 일, 입원하셨을 때 간병하는 일, 소식지를 만들어 보내는 일 등 여러분의 손길에서 양심수 후원회는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행, 수련회, 기행, 송년모임을 통해 회원만이 갖는 독특한 정서, 긍지를 키워왔습니다.

다시한번 회원여러분의 성원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출소선생님들의 종합검진을 기꺼이 맡아해주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여러분.

그러나 지난 해 우리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오랜 옥고에서 얻은 질환으로 윤기남, 강철순, 정종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후원회 발족때부터 격려와 성원을 다해주셨던 박현채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유한옥, 이종, 최남규, 임병호, 김도한, 신현철, 권양섭 선생님이 입원하여 어려운 투병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종, 최남규, 김석형, 김종호, 금재성, 김도한, 임병호, 권양섭, 고성화 선생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전쟁포로로서 원적지 송환을 요구해온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선생님의 송환문제도 밝은 소식이 없습니다. 모두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회원여러분.

이제 아쉽고 못다한 일들은 더 큰 다짐으로 새해에 해내야겠습니다.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석방운동, 그리고 이 땅에 정의, 평화를 실현하고 자주,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나이들어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분들이 하루빨리 고향에 가서 가족을 만나게 하는 일은 민족적 과제이면서 인류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모두 힘모아 새날, 새 희망을 열어나갑시다.

말긴 일 옹게 다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채찍과 격려 기다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1996. 새해 아침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회장 권오현



옥문을 열자

김규동(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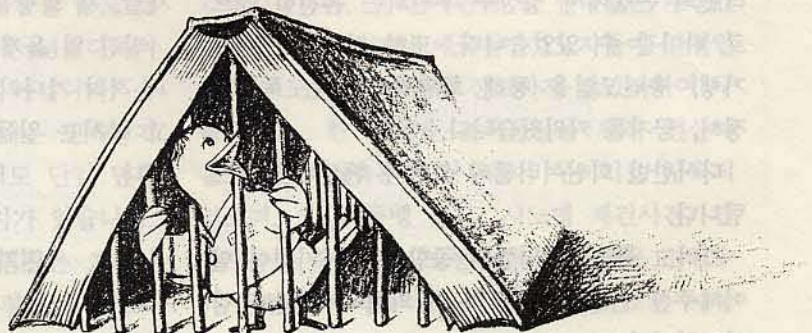
맺힌 것을 풀자
아무리 깊이 맺힌 것일지라도
못풀 깨달이 어디 있느냐
반 백년을 두고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한 채
반쪽으로 실았으니
이만하면 무던히도 태평하게 살은 셈이다.

그것이 모순임을 알았으나
이를 넘어서는
항거와 사랑
용기가 없었음에
아제 소스라쳐 놀랄 때도 되었다.

깨어 있는 정신
양심이며
양심을 실천하는 자여
1996년 새해의 인사를 받으시라
그대들 열렬한 사랑의 힘 압어
우리 모두 대열을 가다듬어
통일이 오는 길로 나아가리
새해에는
감옥문을 활짝 열자
화해와 정의가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 되게하자

자유를 사는 곳이
감옥이라고는 하나
차가운 콘크리트벽은
어느만큼 견디기 어려울 건가
감옥이 학교라고는 하나
수고로움인들 얼마나 크랴

열자 감옥문을
양심이 보다 자유로이
사람의 길 인도하도록
모든 부자와 질곡을 분쇄하자





1996년을 맞으며

양심수 후원회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활동, 양심수의 옥바라지며 즐거운 산행이며 일일차집이며를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힘이 솟아날 정도로 숨은 봉사자로서 훌륭한 일들을 해내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그렇게 모두가 원하는 통일염원을 가슴에 안은 채 새해를 맞이하였군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치며 몸부림쳐왔기에 통일은 우리 국민의 가슴에 북한 인민들의 가슴에 메아리쳐서 간절한 염원으로 자리 잡았다면 이것이 큰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민족이 적이 아니고 한피 받은 한겨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은 다 됐어”라고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국토통일이나 정부통일 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족 통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인데 마음은 이미 뜨겁게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전쟁은 없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북쪽을 석기시대로 만들었다고 했었는데 그 잣터미에서 피 땀흘려 건설한 약진하는 도시와 농촌들을 다시 잣터미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쟁, 그 괴물은 지구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부해야 합니다.

북쪽에서는 “통일마중”이라고 하고 우리는 “통일맞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딱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7천만 겨레의 통일 열망은 이제 무르익을대로 무르익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목 놓아 울면서 통일 조국을 부르짖는 것을 직접 보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서울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광주 계세요” 하며 애타게 호소하는 딸들을 직접 보고 왔는데... 우리의 통일은 뒷걸음 칠 수 없습니다. 나이 많으신 노인들은 자꾸만 저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는데.... 더 지체 할 수는 없습니다.

새해에는 통일 마중을 나가서 통일을 맞이하여 통일 세상을 만듭시다.

우리에게는 이미 만들어진 남북합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수재를 만났을 때 북쪽에서 쌀이며 옷감이며를 트럭으로 직접 싣고 왔는데 우리는 왜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답례를 하는 뜻에서라도 쌀과 옷감을 싣고 분계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30년, 40년 감옥살이하고 나온 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야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같이 나누며 오손도손 넓지 않은 땅을 오가며 동포애를 발휘해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동방예의지국으로 햇불을 높이들고 나서야 합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화신으로 변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크고 밝고 둥근 해가 우리 한반도에 높이 솟아 오르기를 두 손 모아 빌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힘찬 발걸음의 한 해가 되소서.

1996.1.1.

박 용 길



평범한 사람의 평범하지 않은 인생

편집부



국 민학교 1, 2학년 때 시험에는 O, X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좋아했던 기억이 있다. 왜냐하면 단순하고 쉬워 거의 틀릴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어린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킨다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살면서 선택의 순간에 가끔 O, X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유나 변명이 통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1951년 10월 15일부터 1995년 8월 15일까지 43년 10개월, 햇수로는 45년을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온 분을 만난다는 것은 '어려움'이다. 그분의 삶의 무게에서 오는 어려움, 한국의 현대사가 한 개인의 생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 내 삶의 부끄러움을 보여야 하는 어려움 등.

선생님이 어떤 생을 살아오셨는가는 '말' 지 95년 10월호를 보면 10쪽에 걸쳐 자세히 나와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선생님의 삶보다는 현재 낙성대에서의 생활에 중점을 두어 소개하려 한다.

김선명 선생님은 1925년 2월 20일(양력)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셨다. 위로 누님 한 분과 밑으로 남동생들, 여동생 셋이 있었다. 뼈대있는 가문의 후손이었고 넓은 들의 끝을 알 수 없는 지주집 아들이었다. 그런 집의 첫 아들이었으니 어린 김선명은 할머니의 치마폭을 벗어나기 힘들었고 집 밖으로 나가볼 수 없을 정도로 보호를 받았다. 소작을 부치던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선명의 부모님께 연신 굽신거려야 했고 어린 선명은 지주집 장손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하대를 하도록 엄격하게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땅의 유무에 따라 계급이 나뉘어진 현실을 어렵 못하게나마 인식한다.

어느 날 일본인 사냥꾼의 엽총을 보고 총을 갖고 싶다는 손자의 말에 할머니는 "너희는 더 좋은 총이 있었다."라는 말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의병에 가담을 한듯 싶었다. 한학과 신학문을 모두 배운 아버지는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는 영 능력이 없었던지 토지조사사업으로 그 많던 땅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공출 등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자 남은 재산을



대충 정리해서 서울로 올라오신다. “일본놈들 보기 싫어서 서울로 간다.” 서울로 이주하면서 아버지가 가족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서울에 올라온지 일 년이 안돼 아버지는 허술한 관리로 재산의 대부분을 날리고 병석에 눕게 되었다. 이 때부터 열일곱의 청년 김선명은 노동자로서 집안의 생계를 꾸려야만 했다. 처음 취직한 곳은 창화방직공장, 형편없는 임금에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라 수줍음을 많이 타는 청년이 다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철공소로 옮겨 줄칼을 만드는 기술을 새로 배운다.

해방. 8.15 해방이 되자 김선명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소한 우봉수 선생의 지도로 ‘영등포특별자위대’를 조직한다. 자위대는 일본놈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장 등 우리 민족의 재산을 지키자고 조직된 자생조직이었다. 이때부터 김선명은 직장을 그만두고 청년운동에 전념하게 된다. 여동생은 방직공장에 나가고 부모님은 대장간을 운영하시다가 후에 자전거포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간다. 친일파 척결과 자주 독립국가를 세워야 할 그 시기에 친일파들이 다시 경찰로 재등용 되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세상이 되었고 좌우익으로 나뉘어 혼란이 가중되던 시절을 선생님은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노동운동과 청년운동을 하며 보낸다.

1950년 전쟁이 나고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있는 후 선생님은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나선다. 그래서 남아있던 가족은 선생님이 인민군을 따라갔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여동생 둘이 총살당한다. 아버지와 누이동생 둘이 같은 날 총살

당한 것을 선생님은 38년이 지난 후 교도소에서 알게 된다.

의용군이던 선생님은 51년 10월 14일 인민군 31사 정찰대원 소속으로 중부전선 철원지구를 정찰하다가 10월 15일 새벽 4시께 유엔군에게 붙잡힌다. 선생님은 영등포 포로집결소로 수용돼 있다.가 52년 6월 국방경비법 32조(부역죄)로 기소되어(48년에 제정된 이 법은 65년에 폐지됨) 같은 해 8월 15일, 서울고등군법회의에서 단심재판으로 15년형이 확정되어 서울 마포형무소에서 복역했다.

그대로 징역을 살았다면 선생님은 늦어도 66년에 석방되어야 했다. 그러나 53년 4월, 서울고등군법회의에서 재취조를 받던 선생님은 갑자기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었고 대구 중앙군법회의에서 취조가 다시 시작되었다. 취조관들은 전기고문, 물고문과 함께 야전침대 받침(각목)으로 구타하면서 “인민군 정찰대가 아니고 간첩부대인 526군부대에서 남파되었다.”고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 선생님은 변호인도 없는 재판장에서 “강제로 무인을 찍히고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호소했으나 휴전직전인 53년 7월 25일 국방경비법 33조(간첩죄)가 추가되어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54년 2월 한 국선 변호인이 사형집행 대기중인 그를 찾아와 “당신은 너무 억울하니 사형을 면하게 청원하겠습니다.”고 말한 후 2월 27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45년의 교도소 생활...

교도소 생활중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72년, 73년에 행해진 전향공작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여쭙지 않았다. 혹독했던 고문의



방법과 내용, 구타, 자고 나면 동료가 죽어나가는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다시 말סה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른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을 예의가 아닌것 같아서였다.

선생님은 45년의 세월 중 다른 사람과 함께 방을 사용한 것은 10년 정도이고 나머지 34년을 0.75평의 독방에서 혼자 계셨다. 89년 들어서면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를 통해 영치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지 그 이전까지 40년 간을 면회 오는 사람도 편지 보내는 사람도 없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사망신고까지 되어서 없어진 사람이 돼 있었다. 영치금이 없었기에 책을 사서 볼 수 없었고, 신문이나 필기구, 종이 등도 전혀 구할 수가 없었다. 하루 세 번 식사때마다 들어오는 형편없는 밥 말고는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책 한 권, 글자 한 자 구경하지 못한 채 관속같은 0.75평짜리 벽이 장기수 선생님들이 접할 수 있는 세계의 전부였다. 그리고 이 공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생각해보라.

0.75평짜리 방에 책 한 권 볼 수도 없이 외부 세계의 문명과 소리와 사람과 완전히 차단된 채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사람을 집어넣고 세끼 밥만 주고 똥오줌만 싸게 만드는 곳의 모습을 우리가 어찌 교도소 '생활'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전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간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인 것이다. 심지어 교도관들조차도 사람이 막힌 공간에서 45년을 보낸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확인하러 오고, 구경하러 오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사회인 것이다.

“일제 식민지 시절, 조국의 해방을 위해 활동하신 선열들을 생각했지요. 그분들은 추위와 눈, 비를 그대로 맞으며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운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 비해

눈,비 맞을 걱정은 안해도 되고 세끼 밥은 먹는데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았죠. 그리고 반드시 통일은 돼야 한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출소하신 후 '세계최장기수 석방 환영의 밤'이 있던 날 선생님은 만남의 집을 포위한 경찰병력에 의해 감금돼 있어야 했고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이 있던 날도 역시 형사들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담당 형사로부터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만나자는 요구가 오고 선생님의 행동반경을 일일이 체크한다. 장소가 바뀌었다뿐이지 감시를 받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사망신고가 돼 있기에 주민등록증과 의료보험증이 없다. 그래서 백내장으로 눈이 잘 안보이고 기관지가 좋지 않아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데도 병원을 찾기 힘들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는 김선명 선생님 외에도 여섯분의 장기수 선생님들이 계신다. 선생님들 모두 연세가 많으시고 오랫동안 교도소 생활에서 오는 후유증을 앓고 계신다. 최남규(85) 선생님은 귀가 잘 안들리고 어지럼증이 있고 기억력이 없으시다. 금재성(78) 선생님 또한 다리가 불편하고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계신다. 이종(86) 선생님은 고혈압이 두 번이나 터져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다. 이런 중에도 계속 시를 짓고 계신데 얼마전에 시집을 내셨다. 유일한 여자분인 정순덕(64) 선생님은 빨치산 출신인데 총에 맞은 다리를 국군이 깊이 잘라버려 의족을 하고 계신데 걷는데 불편함이 많으시다. 김도한(83) 선생님은 쇠약하시고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으시다. 1월 8일 입원을 하실 예정이다. 김석형(84) 선생님은 연세에 비해 비교적 건강하신 편이다. 72살의 김선명 선생님이 막내라고 할 정



도로 낙성대에 계신 선생님들은 모두 연세가 많으시고 워낙 긴 세월을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 말수도 적다.

낙성대를 찾아오는 사람은 많다. 찾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친숙한 분으로 마음에 있기에 시간내서 간다고 하겠지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늘 낯선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것이다. 방문자들은 선생님들께 이것저것 여쭙어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질문의 내용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한 것이어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말을 계속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찾아오고 전화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문자의 이름과 얼굴을 알 수 있는 그런 후원회원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수 선생님들의 오랜 수감 생활에 마음 아파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출소한 후에는 민가협에서 '알아서' 돌보지 않겠는가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로, 정말로 선생님들이 30년 40년의 세월을 외부와 단절된 채 0.75평의 방에서 책 한 권도 없이 편지 한 통 없이 영치금 한 푼 없이 생활을 하신 것이 어쩔 수 없었던 일일까.

우리 사회가 좀더 빨리 민주화가 되고 장기수 선생님들에 관해 조금만 더 빨리 활발한 석방운동을 폈다면 그래서 10년만이라도 먼저 나올 수 있었다면 선생님들에게 10년이란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많은 후원회원들이 후원금을 낸다. 그러나 후원금은 그분들에 대한 동정이 아니다.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 동참하지 못하는 자신을 달래기 위해 내는 것이어서도 안된다.

부자유한 시대에는 그 누구도 자유인일 수 없다고 했다.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하여 감옥 안에 서건 감옥 밖에서건 장기수가 존재하는 사회에

서는 그 누구도 자유인일 수 없다. 여든이 넘은 어머니가 예순일곱이 된 아들의 석방을 위해 목요집회에 참석하는 사회에서, 39년동안을 가둬두고도 석방할 수 없다고 하는 사회에서, 조국통일을 원하는 평범한 사람을 45년간이나 평범하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걷게 하는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인일 수 없다.

이종선생님 등 출소한 선생님들께서는 민가협에서 도와드리는 몇 푼 안되는 생활보조금을 아껴 삼천원씩, 오천원씩 후원회비를 꾸준히 내신다. 지금도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보내고 계신 감옥 동료들을 생각하며.

"여기 만남의 집은 방바닥이 따뜻하고 성애가 안끼니 감옥에 있는 선생들 생각이 더욱 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빨리 그 선생들 나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노태우와 전두환의 구속과 끝없이 만들어지는 양심수들, 역사청산과 또다시 고개를 드는 간첩사건 등 우리를 혼란케 하는 내용들이 작년 한 해 많이 있었다. 그럴 때일수록 냉정히 생각해 보자. O, X의 답으로. 우리의 조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분단된 조국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나 자신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하는가. 양심수 후원회원으로서 단 돈 오천원 정도의 후원금을 못 낼 정도로 생활이 팍팍한가 등등.

사람들은 김선명 선생님이 석방되는 것을 보고 세상 많이 변했다고 했다. 그렇다. 많이 변했다. 그러나 변한 것보다는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고, 우리의 생각 중에는 변해야 할 부분보다는 고수해야 하는 부분이 아직은 더 많이 있다. 오히려 고수해야 할 생각마저도 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는 않은지 새해아침에 생각해 본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바치시는 민가협회원들께 새해는 큰 희망과 용기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1세기 통일된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공로비를 세워드려야 할 민가협이 금년에는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빕니다.

광주 **김낙중**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올 한해가 저물어 가는데 그래도 뜻깊은 진전은 김선명 선생님 등 초장기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고에 힘입어 석방될 수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정말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삼풍사고 등 가슴아픈 일이 많은 한 해였지만 그래도 1995년에 위안을 받는 것은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회상이 되는 80년 5·18 광주만행의 주모자가 골목성명의 간간한 저항 끝에 징역의 독방에 갇히게 된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세요.

전주 **김성만** 구미유학생사건

올해는 전, 노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이 날을 맞이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밤이 있었음을 새롭게 돌이켜 봅니다. 아울러 그 고통의 어둠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도 어쩔 수 없이 기억하게 됩니다. 하여 이제부터 남은 일을 하나하나 차분히 매듭지어 나갈 결의에 힘이 샘솟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해를 기다립니다.

대전 **변의숙** 남한조선노동당사건

변함없이 돌보아주시는 후의 덕에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네루의 세계사편력을 읽다보니

날이 밝아오는 새벽하늘을 바라보면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한 시기가 있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때가 바로 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이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께도 언제나처럼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백태웅** 사노맹사건

이땅의 자주와 민주, 그리고 인권의 수호와 신장을 위해 항상 최전선에서 싸워오신 선생님과 우리 민가협 여러가족들께 힘찬 격려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심을 담보로 청춘과 자유를 빼앗긴 모든 사람들의 해방을 빌며...

홍성 **서선원**전기협 의장

지난해에도 여전히 양심수후원회의 크나큰 사랑과 격려로 저희 초장기수들은 무사히 지낼 수가 있었음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살아남게 된다면 이 참다운 사랑에 대하여 반드시 보답해야겠다는 것을 굳게 다지며 성실한 정치범으로 한점 부끄럼없이 열심히 살아나겠습니다.

전주 **신광수** 장기수

양심수 없는 세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오신 여러 선생님들께 대전 15사 저희들 모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감옥에 있는 저희들보다 몇곱절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저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후원회 여러 회원들께도 우리들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어머님들의 슬프고 아린 가슴 속의 한을



풀어내는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전 **신인영** 장기수

언제나 잊지않고 마음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다함께 감옥에 있는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해 어깨걸고 나가는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전 **안재구** 구국전위사건

흐르듯 밀리듯 한해는 가고 새해는 오나봅니다. 세월의 체중이 이리도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뒤돌아 본 어제가 아득하기만 한 옛날, 내다보는 내일이 안개 자욱합니다. 하지만 한켠 뒤집으면 새록이 고개드는 바램, 이 바램이 있기에 구겨지고 질척인 오늘을 딛고 발돋움합니다. 올 한 해도 양심수들을 위하여 애써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새해에도 보람의 나날되소서.

광주 **양희철** 장기수

하릴없이 바깥 여러분들께 고생만 시켜드리면서 이렇게 새해를 맞았습니다. 안팎의 정성을 한데 모아 참된 민주주의와 자주, 평화통일의 한길로 큰 걸음 내딛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모든 분들께 사랑의 인사 드립니다.

광주 **오종렬** 광주전남연합의장

노씨에 이어 전씨가 구속되는 어쩌면 너무 늦은 역사의 순리를 지켜보면서 다시금 우리를 되돌아 봅니다. 많이 부족하여 마땅히 밝아져야 할 곳, 마땅히 웃음살이 환해야 할 곳들이 여전히 짙빛이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의 지원과 격려와 애정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점차

커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땅의 모든 억눌린 것들, 가려진 것들이 기지개를 펴고 모든 가능성이 움터날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푸르고 맑은 마음 간직하겠습니다.

강릉 **은수미** 사노맹사건

그간 옥안에 있는 모든이들에게 행하신 배려와 사랑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민가협이 뜨거운 열정은 역사속에서 전승될 것임을 믿습니다. 늘 기쁨과 건강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청주 **이운정** 광주시의회의원

우리 양심수에게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는 어머니 아버지 품과도 같습니다. 늘 보내주시는 정성과 사랑은 우리들에게 새 역사에 대한 믿음을 준답니다. 김영삼씨의 무당 푸닥거리 같은 '역사 바로세우기' 하에서 양심수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군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과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역사바로세우기'는 선무당 칼질에 지나지 않겠지요.

의정부 **정찬수** 일심단결회사건

올 한해도 밖에서 격려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홀로 견뎌내야 하는 이곳 생활에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안에 있는 저희들이야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내적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만 밖에서 추위와 더위 등 여러 어려움과 부딪히며 싸우는 분들이 더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며 더욱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해에는 담장안으로까지 희망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원주 **함정희**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못 할, 일, 이, 다. 이번 겨울들어 가장 춥다는 96년 첫 목요일. 온도계의 수은주도 동장군의 기세에 밀려 빨갭게 얼어 집으로 파고드는 영하 십도가 넘는 추위의 탐골공원. 입김으로 언 손을 녹이며 오륙십줄을 훌쩍 넘어선 어머니들이 아들의 사진을 들고 서 계셨다.

정말 못할 일이다.

한시간이 넘도록 발을 동동 구르며 시도 때도 없이 저러오는 허리를 연방 두드리며 무심히 지나는 종로통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계셨다.

편집부

나는 민가협 엄마라 해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가족품에, 양심수를 가족품에!”

남편을 감옥에 둔 아내는 편지를 읽어 내린다. ‘동상이 든 부위를 찢어 피를 내면 좀 시원해진단다’는 남편에게 이 엄혹한 겨울은 봄의 시작이라고 믿는다며. 정말 못할 일이다.

이 곳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커다란 체구에 목소리가 걸걸한 임기란 어머니(67세).

“우리가 복 받는 거는 무조건 건강해야 하는 거라. 그래, 복 많이 받고 몸조심 잘하고...”

“아차, 내가 아까 세대(정창호 부인) 편지 읽는거 듣고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 그 동상 말인데 그렇게 하면 안돼. 다음번에 또 덧난다. 그거는 얘기해서 꼭 외부진료 받고... 안되면 싸워서라도 꼭 그렇게 해야하고...”

목요일집회가 끝나 인사를 나누고 뿔뿔이 흩어져 가는 길에도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챙기느라 바쁘시다. 그렇게 발이 넓고 마음이 넓은 어머니의 말투에선 경상도 사투리가 뚝뚝 묻어난다.

어머니의 고향은 경상북도 포항. 스물넷이 되는데 54년 결혼을 하시기 전까지는 포항고녀를 졸업하신 후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다.

“우리 아저씨? 서울대 문리대 화학과 6회 졸업생인데 당시는 학도병으로 육군 대위셨지. 남편따라 부산에 가셔도 살고 서울서도 살고 또 충주에서도 좀 살고... 와 지금 생각해 보니까 10년 사이에 참 많이 다녔네, 그치?”

그렇게 이사를 다니시며 어머니는 2남 3녀의 다섯 남매를 모두 건강하고 똑똑하게 기르신다. 여느 어머니들처럼 공부 잘하는 아들, 딸들을 자



랑스러워 하시며.

그러던 85년 10월 20일, 막내아들 박신철 님(서울대 83학번)의 민정당 사 점거 사건은 어머니의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처음에는 아주 가슴이 철렁 내려 앉고 기가 막혔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분명히 선배들이 시켜서 한 일일 것이다. 우리 착한 신철이를 선배들로부터 떼어 놓으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막내아들의 두번째 구속은 더욱 어머니의 가슴을 터지게 하는 일이었다. 전두환 군사독재에 항거한 일을 ‘빨갱이’라 하여 빨간 밧줄로 묶어놓은 아들. 어머니는 집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다.

‘예쁜 내 새끼’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은 어머니를 교도소 앞으로 몰아 갔다. 막내 아들이 교도소로 넘어가서도 어머니는 아들을 볼 수가 없었다. ‘잔당이 모두 잡힐 때까지’는 일체 면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사이 박신철 님은 15번을 구정물에 담겨지는 등 비인간적인 고문을 겪는다.

어머니는 이 때 매일 가는 서대문교도소 앞에서 어머니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신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모여 목이 터져라 ‘내 자식을 내나라’ 소리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론 맞아가며 하루를 꼬박 보내고, 다 늦은 저녁이 되면 힘없이 아들, 딸을 감옥에 두고 바위보다 무거운 어깨로 돌아가는 어머니들. 그렇게 지쳐 돌아갔다가도 다시 아침이 되기가 무섭게 ‘오늘은 내 새끼를 찾아가겠다’는 절절한 다짐으로 다시 모여 드는 어머니들.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들을 보며, 그리고 재판 때마다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는, 결코 포승에 묶인 죄인이 아닌 분단에 묶인 애국 청년들을 보며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

“전두환때 구속된 학생, 민주인사 수가 6천명이라 합디다. 그러니 그 가족 모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노동자 가족, 학부모 모임, 재야운동가 가족모임 그런 식으로 모임이 여럿 있었는데, 그 가족모임이 하나로 뭉쳐 민가협을 만들었지요. 단결해야 이기니까.” 민가협에 참여하면서 임기란 어머니는 69년부터 활동을 해오시던 YMCA모임을 그만둔다.

“내가 몰랐던 이 세계가 더 좋았고,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서로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Y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고작 한다는 얘기가 아들이 빨갱이 짓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 어쩐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거야.”

그 후 민가협 어머니들의 활동은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찬란하다.

“그동안 우리 엄마들 TV에 많이 나왔어요.”로 시작되는 민가협 어머니들의 투쟁역사.



노태우가 기만적인 6·29선언을 하고 나서의 일이다. “누구와도 만나겠다.”는 6.29선언 다음날, 민가협 어머니들은 민정당사를 쳐들어 간다. 우여곡절 끝에 임기란 어머니를 비롯해 열세분이 면담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가협 어머니들을 만난 노씨지만 정작 자리를 모면하고자 형식적인 말 몇마디로 10분만에 일어나서 도망치듯 돌아섰다. 도망가는 노태우의 뒤통수를 향해 한 어머니가 ‘광주 학살범 물러나라!’며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곧이어 벌어지는 아수라장. 어머니들은 노태우에게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을 무작정 던지며 늘 가슴에 품고 있던 한치럼 구호를 처절히 외친다. ‘광주 학살범 물러나고, 장기수를 석방하고, 내 아들을 석방하라, 내 아들을 석방하라!!’

임기란 어머니는 아들이 풀려난 후에도 계속 민가협활동을 하다 89년도에는 회장직을 맡아 큰 살림을 꾸려 가셨다.

“그 동안 우리 엄마들이 모여 싸움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다녔지만 사실 욕도 많이 먹고 발길질도 무수하게 당하고 했어요.”

이제 고인이 되신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날이었다. 어머니들은 문목사님을 맞으러 공항을 향했지만 공항에서 마중도 하기전 경찰관들에게 잡힌다. 이미 얼굴이 조금씩 알려져 있는 터였다. 경찰관들은 무지막지하게 어머니들의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해댄다. ‘이년들은 또 웬 년들이야 강서경찰서까지 우악스런 손에 머리카락을 잡힌 채 어머니들은 끌려갔다. 가보니 15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미 잡혀와 있었다. 어머니들이 어디 경찰서를 무서워하던가. 어머니들은 학생들을 모두 석방시킬때까지 고함치고, 구호를 외치다 학생들이 모두 석방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경찰서 문을 가볍게 열고 나왔다.

어머니에게서 흘러나오는 결코 과거가 아닌 현재도 계속되는 민가협 어머니들의 투쟁담은 끝이 없이 이어진다. 88년 겨울, 영하 13도, 50명의 어머니들은 인제의 산골짜기 전두환이 백담사에서 팔자좋은 칩거생활에 들어 갔을때 백담사까지 쫓아가 밤새 추위에 뽕뽕 언 길을 걸어 가며 구호를 외치고, 끌려 들어간 파출소 앞의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문구를 모두 매직으로 지운 일, 92년 대선을 앞둔 정권이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고문 수사하던 당시, 36일간을 안기부 앞에 몰려가 농성을 벌이다 방패에 맞은 머리가 찢겨 임종석의 어머니가 입원을 했던 일 등등.



94년 여름, 박홍의 발언으로 정부와 언론, 여당이 합세해 온사회를 '붉은 공포증'으로 몰아가며 무수히 많은 양심수를 만들어 내던 때였다.

"박홍이가 으름스런 얘기를 꺼내기가 무섭게 엄마들이 서강대로 몰려갔어요. 그랬더니 뭐 제주도 갔다 어디 갔다 하면서 피하더라구요. 그래 3일간을 쫓아 다니다 결국 면담을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사제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야비하고 너무 너무 욕을 잘하는 거예요. 내참, 우리 애들을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어머니는 그 때 일을 말씀하시며 너무 속이 상하고 분해서인지 말의 서두도 잘 꺼내지 못한다. '운동권? 개네들은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지지리 가난하게 자랐지만 머리는 좋아서 대학에 간 애들이 핫김에 서방질한다고, 그렇게 운동하게 된 애들이에요.' 특유의 밋살스런 말투에 어머니들은 일제히 박홍에게 따졌다. 가장 더웠던 94년 여름, 어머니들은 더워서, 하도 열을 받아서, 다들 기절하기 일보직전이었다 한다.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야, 이 새끼야, 너도 주사파지?' 하는 욕지거리를 서슴없이 해대는 비이성적 사람에게 더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이 나와버렸단다.

노태우가 구속되던 날 호송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소리소리 지르다 걸린 감기가 아직도 떨어지지 않아 고생하고 계시는 임기란 어머니는 요즘도 바쁘시다. 작년 12월 30일에는 범민련 가족의 농성장에 떡과 김치 고기 등을 실어다 드렸다. 작은 정성이지만 힘을 내라는 의미에서.

임기란 어머니는 손이 크다. 세 사람이 마실 차를 여섯 잔이나 내오셨다. '무슨 차를 좋아할지 몰라서...' 하시며 한 잔의 커피와 두 잔의 쌍화차와 세 잔의 녹차를 내오셨다. 세사람이 먹을 과일을 한 광주리 안고 들어오셨다. 그렇게 먹고고도(?) 어머니는 또 저녁을 먹고 가라 잡아끈다.

"얼핏보면 우리 민가협 엄마들이 아주 성질 사납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예요. 사실 민가협 엄마들이 얼마나 눈물이 많고 잔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들 당해본 일이다 보니 누가 조금만 고문받은 얘기, 생활하면서 힘든 얘기를 하면 내 일처럼 마음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가협 엄마들이에요. 사실 민가협 엄마들이 좋은 일 한다는 자부심으로 움직이는 거지 누가 시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성찬보다 더 배부른 얘기를 듣고 집을 나서며 입을 오무려 휘파람으로 노래를 불렀다.

'사람사는 세상이 돌아와 ... 해방의 거리로 달려 나가네 ... 사람사는 세상이 돌아와 ... 모순덩어리 억압과 착취 저 붉은 태양에 녹아 버리네 ... 아아, 우리의 승리 ... 어머니 해맑은 웃음의 그날 위해.' 보랏빛 수건을 벗어 흔들며 어머니들이 웃고 있었다.



아버지 전상서

10여년만의 추위. 총같이 휘몰아치던 16년전, 그 유신에 반대하여 구속되었던 그해 겨울처럼 올해도 춥습니다. “왜 네 아버지께서 구속될 때만 날씨가 추운가”며 어머니께서 걱정하십니다. 저희 자식들도 아버지가 걱정입니다. 10여년 넘은 뇌빈혈은 요즘 어떠신가요. 안기부에 계실 때는 뱃기가 민망할 정도였는데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조금 나아져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긴 합니다.

아버지!

제 뉘때 지어주신 깃구절은 아직도 어머니 장롱속에 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요. 막 자동 연필깎기가 나왔는데 제가 사달라고 조르자 아버지께서 손으로 깎는게 훨씬 좋다고 직접 깎아주셨습니다. 배개맡에 필통을 놓아두면 어김없이 깎여져 있던 연필! 술드시고 늦게 들어오셨을 때도 아버지께서는 거르지 않았죠! 정말 기계로 깎은 것보다 예뻐했습니다. 사줄 돈이 없어 그러신다는 것을 안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배풀어주신 그 정성, 그 사랑을 아들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해 겨울은 너무 추웠고 감당할 수 없는 내 나이는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으로 쌓여갔습니다. 10년 가까이 옥살이하고 같이 살게 되었을 때의 서먹함, 그 부자지간의 서먹함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그 어떤 이별도 혈육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얼마나 많은 혈육의 정을 나누었습니까? 마치 지나간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말입니다. 사춘기를 아버지없이 보낸 저를 안스러워 하셨죠! 저는 아버지가 안스러웠습니다. 늙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것은 분명 서글픔입니다. 아버지를 편히 모시지 못한 아들의 마음일까요.

남들은 손자들의 재롱에 시간가는 줄 모르는 환갑이 지난 나이에, 조국과 민족, 통일에 대한 열정 하나로 살아오신 아버지! 나이 젊은 저보다 훨씬 청년이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저는 언제나처럼 이 순간에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수많은 고난과 난관을 헤쳐오셨고 극복해냈기에 이번에도 이겨내리라 아들은 확신합니다.

이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다해도 그것은 봄을 재촉하는 발걸음일 뿐입니다. 통일된 세상, 양심수가 필요치 않는 세상,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런 세상은 겨울을 이기고 봄을 가져올 것이라 믿으며 이만 줄입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1996. 1. 4 아들 상천 올림



명지아빠 보세요.

날이 꽤 추워졌어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추울거라 하여 걱정을 했는데 불리지 않고 이렇게 춥네요.

세상에 가장 추운 곳, 그곳에서 당신은 동상과 싸우며 살고 있겠죠. 언젠가 내가 동상때문에 어쩌냐고 걱정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동상이 걸린 부분을 약간 찢내어 피를 쏟고 나면 동상이 풀린다 했지요. 문득 그 생각이 나면서 새벽 한기 속에 피를 뽑고 있을 당신이 그려집니다. 사방에 답답하게 서 있는 벽을 친구삼아 초저녁에 교도소에서 준 뜨거운 물주머니는 식어버리고 언 손발이 무척 가렵고 괴로워질 때 당신은 그렇게 앉아 열심히 자신의 피를 보고 있겠죠.

이 겨울이 우리에게 준 시련 중에 사실 동상은 작은 부분일 겁니다.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또 한해가 가고 오는 요즈음 사랑하는 사람이 그림고 보고픈 가족들이 그리워 잠 못 이룰 수많은 수인들. 갇힌 그 누구라도 그 그리움을, 겨울을 참고 봄이 오는 걸 기다리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할 것입니다.

한해가 가고 오고 벌써 당신과 내가 헤어져 맞는 4번째 해, 96년입니다. 그 4년간 당신이 한 번 안아보고 잡혀간 후 아빠를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만나온 딸 명지는 유치원에 갈 만큼 커버렸습니다. 골잘 말을 하고 궁금한 것도 많아진 딸애가 가끔 아빠가 그곳에 있는 이유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대답이 궁하고 엄마도 모르겠으니 아빠한테 면회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당신도 대답하기 힘든 아이의 질문, 그 질문은 사실 이 나라의 미래에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갇혀 살아야 하나요. 급게 자라나는 딸과 아내 곁을 떠나 왜 아직도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가요.

96년 올해 그에 대한 바른 답이 듣고 싶어집니다. 우리의 고통이 깊어지는 만큼 당신의 갇힌 세월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 시대, 우리 역사가 바른 길로 들어서길, 그래서 새 기운으로 용트림하는 통일 민주의 새역사가 펼쳐지고 그 열린 세상 품으로 당신이 돌아오길 올해도 기원해 봅니다.

그렇게 95년 새해도 맞았었는데, 그래도 역시 오늘 두 손을 모아봅니다. 미래를 밝게 볼 수 없다면 오늘 눈물만을 흘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도 건강하게 을 한해 보내세요. 이만 줄일게요.

1996.년 1월 명지엄마가

위 글은 차장환 남(자난 92년 9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12년형이 확정,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에게 쓴 편지



- 12 1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창립 제4돌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 2 - 전두환이 검찰소환에 따르지 않겠다며 방자한 성명을 발표하고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 법무부, 일반사면을 실시한다고 하나, 양심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 전국연합 주최 '5.18 특검제 도입 촉구 및 공안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종묘공원에서 갖고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습니다.
 - 사노맹 구속자 가족모임 '민들레'의 송년모임이 있었습니다.
- 3 - 전두환, 합천에서 연행되어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 4 - 꽃동네에 계신 유한옥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건강은 좋으신 편이고 지금은 인곡자에 병원 607호에 계십니다. 수원에 계신 정완재 님, 애쓰셨습니다.
 - 신현칠 선생님께서 뇌졸중으로 경희의료원에 입원하셨습니다.
- 5 - 신현칠 선생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오른쪽 전신이 부자연스럽고 약간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 양심수후원회 12월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송년모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검찰, 노태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재벌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원조, 금진호는 불구속 처리 했습니다.
 - 안기부가 전국연합 사무처장 박충렬 씨를 조사하며 집단구타 등 고문한 사실이 윤기원 변호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 6 -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전교조 광주지부 등 범민련 간부 구속과 임신 8개월인 고애순 씨를 구속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 서울지법 민사 제41부, 사회안전법 출소자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행한 보안처분이 정당하다고 11월 19일 판결했음이 밝혀졌습니다.
- 7 - 민가협 목요일집회가 있었습니다. 불고지 혐의로 연행 구속되었다 풀려난 이인영 씨의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 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 범민련 관련 구속자 중 신창균, 김광열 씨의 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했습니다.
- 8 - 생포무장간첩이라는 김동식이 기자회견을 갖고 허인회 씨 등을 만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가협 등 재야단체는 '고정간첩' 실체 등 세간의 의혹을 풀지 못한 채 김동식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과정도 없이 언론을 통해 직접 유포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민가협 공동의장이며 통일맞이 칠천만 겨레모임 이사장이신 박용길 장로님 석방환영모임이 있었습니다.
- 9 - 경희의료원으로 신현칠 선생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 범청학련 대표 박성희 후원의 밤 하루주점이 경희대 앞에서 열렸습니다.
 - 미연방지법은 스위스은행에 예치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재산을 인권피해자들에



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10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일곱번째 공연이 7천 여명의 뜨거운 성원속에서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공연을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11 - 대법원 형사 3부(주심 심성택)는 5공 당시 언론통제 실상을 폭로한 [말]지 김태홍, 신흥범, 이주인 씨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12 - 서울민사지법 29단독 여상원 판사는 노태훈 씨를 영장없이 불법연행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상대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 광암교회(이상섭 목사, 김금자 여전도회 회장)에서 성금 500,000원을 영치금에 써달라며 유원호 선생님을 통해 전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4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박충렬 씨 사례발표(부인 남향숙 님)와 5·1 동맹 구속자 가족의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 15 - 대우정밀 해고노동자 조수원 씨가 산업체 병역 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장기농성을 하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5·18 헌법소원 종결을 선고했습니다.
 - 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 판사는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 씨가 낸 '유치장소 임의변경' 취소 준항고를 받아들여 안기부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16 - 민가협의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가 총회를 열어 96년 민가협을 이끌어 갈 신임 회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새회장에 이영옥 님(김종성 씨 어머니), 부회장에 정양엽(송갑석 어머니), 이정님(박성철 어머니), 백정례(구해우 어머니), 이윤옥(변의숙 어머니), 장영숙(소종민 어머니), 전금자(김선태 어머니), 이정임(박성철 어머니) 님이 되셨고 총무에는 안금득(조형곤 어머니) 님이, 감사에는 김정숙(임종석 어머니) 님과 최진호(최영철 아버지) 님이 되셨습니다. 후원회장에는 임기란 님(박신철 씨 어머니)께서 뽑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전국노점상연합이 종묘공원에서 '빈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대회'를 갖고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씨 사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17 - 양심수후원회 95년 회원 송년모임이 회원들과 민가협 어머니들, 출소하신 여러 장기수선생님들, 전국연합 등 각계 인사 170여명이 모여 광화문에 있는 음식점에서 열렸습니다.
- 18 - [후원회소식] 50호를 발송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애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태우의 뇌물수수 사건 첫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민가협 회원들, 법원정문에서 방청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경순(94년 민가협 상임의장) 님이 파출소에 연행되었으나 바로 석방되었고 노태우가 탄 차에 달걀을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 21 - 송갑석 전대협 의장이 5년 2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대구교도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구교도소 앞에서 서울, 대구, 광주 등에서 200여명이 환영모임을 가졌습니다.



12. 1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습니다. 양승혜(양정호 님의 조카), 황대권님의 어머니께서 편지 낭송을 하셨습니다.
- 22 - 민가협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말] 1월호 5권을 교도소에 발송했습니다.
- 23 - 소설 [뺨뵈] (안일순 지음) 49권을 양심수들에게 발송했습니다.
- 송갑석 환영 및 전대협 동우회 송년모임이 있었습니다.
-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601명에 대해 가석방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양심수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 26 - [후원회소식] 51호 편집모임이 있었습니다.
- 양심수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했습니다.
- 미국 수도장로교회자녀돕기 성금을 서경원 님, 김태룡 님 가족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 27 - 숭실대 배규선 선생님께서 1,000,000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큰 정성 감사드립니다.
- 28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습니다. 박영생(전노련간사), 황운범(대우정밀 병역특례해고노동자), 배정민(범민련 간사)님이 사례발표를 하셨습니다.
- 민가협과 푸른영상이 공동제작한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시사회를 민예총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 낙성대 만남의 집과 출소선생님께 생활지원금을 드렸습니다.
- 29 - 양심수 312명에게 영치금을 발송했습니다.

1월 산행

언 제

96년 1월 21일(일) 오전 10시

어디로

북한산 보현봉

모이는 곳

평창동 북악파크

준비할 것

따뜻한 물, 도시락, 회비 3,000원





그동안 함께 해오신 나라사랑청년회 양심수후원모임이 '억새들'이라는 이름으로 새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억(억)만년을 살아도 새(새)로운 우리들(들)은 억새들같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통일진군의 변함없는 벗이고자 한다는 나라사랑의 '억새들'. 힘찬 활동을 기대합니다.

정인숙 운영위원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남정현회원(시인)의 부인이자 나명주회원의 시어머니인 신순남 여사(한국방송작가협회 회장)가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김선명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운명하셨습니다.

45년 감옥살이를 지켜주셨다던 그 이름, 어·머·니.

지난해 8월 31일, 45년만에 이뤄진 김선명 선생님과 어머니(홍우숙)의 만남은 25분이었습니다.

사상범 가족이라는 이유로 철창밖의 가족들이 겪은 피해는 7순의 아들과 9순의 어머니의 만남을 그렇게 가로막았습니다.

"너 만나기 전에는 난 안죽어."라며 기운없는 몸에도 또렷하게 말씀하셨던 그 어머니가 지난 11월 30일, 운명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선명 선생님의 애통함을 위로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들 입원하시고 퇴원하심.

- 지난 해 12월 4일 뇌졸중으로 경희대 의료원에 입원하셨던 신현철 선생님께서 증상이 좋아져 1월 12일 퇴원하셨습니다. 더욱 건강하세요.
-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80 노구를 이끌고 분주하셨던 박정숙 선생님께서 과로하여 전에 앓으셨던 신우염이 재발하여 1월 7일 한일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1월 16일에 퇴원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 간헐성 협심증으로 고생하시던 김도한 선생님께서 1월 8일 보라매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셨다가 706호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 권양섭 선생님께서 1월 11일 보라매병원 635호실에 입원하시어 정밀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도 어서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 오랜 옥고를 치루고 나온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 건강이 늘 염려됩니다. 그동안 이래선, 이종, 조창순, 최남규, 이종환 선생님이 입원하셨을때 회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간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김도한, 권양섭 선생님이 입원해 계시고 많은 분들 건강이 날로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건강과 관련하여 간병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쪼개 선생님들의 건강을 돌볼 회원들을 기다립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양심수후원회 '95 회원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보람과 희망의 새해를 맞이
 위한 95년 회원송년모임이 12월 17일 광화문
 '새서울'에서 회원 등 17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날 모임은 이 종, 허영철, 김명수,
 김형태 선생님을 비롯한 서울, 전주, 대전, 광주 등
 전국에서 출소하신 선생님들이 오셨고, 임기란, 안
 옥희, 윤혜경 님 등 민가협 운영위원과 회원들, 그
 리고, 전국연합의 천영세 공동의장, 유가협의 박정
 기 회장님과 강민조 전 회장님 등 여러분, 4월혁명
 연구소의 황건 소장님과 윤성식 전 소장님, 조영건
 교수님 등 여러분, 민자통의 나창순 공동의장님과
 여러분들, 여러 단체에서 와 주셨으며 이기형(시
 인), 임현영(문학평론가), 안일순(작가), 임종인(변

호사), 장기표(민주당), 노중선(통일운동가) 님 등
 많은 손님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모임은 인사말씀에 이어 지난 8월 15일 풀려나신
 김선명, 안학섭, 한장호, 선생님께 환영말씀과 큰
 박수로 열렬한 환영의 뜻을 표했고, 세 분을 대표하
 여 한장호 선생님께서 답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장의균(일본유학생사건), 손성표(전대협사건), 최진
 섭, 정경수(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님 등 최근에 출
 소한 양심수들의 환영과 인사말, 좋은 노래로 사랑
 받고 있는 안혜경(가수)회원님의 축하노래로 이어
 졌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의 건강과 통일되고 양심수 없는
 세상을 위한 건배를 한 다음, 조출한 음식을 나누며
 반갑고 정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민가협
 어머님들께 드리는 글을 양계숙 회원이, 회원이 선
 생님들께 드리는 글을 김호현 회원이 올렸으며 여
 러분이 함께하는 노래와 덕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운 감방에 간혀있는 양심수들을 위한 즉석모금도
 이루어졌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변함없는 활동을 다짐하며 다함
 께 손에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부르며
 아쉬운 시간을 마쳤습니다.

미처 연락드리지 못한 회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박은영 · 인천시 부평구

이재희 · 마포구 성산동

이숙영 · 여주군 강천면

김월전 · 노원구 월계3동

백현주 · 노원구 상계2동

이산희 · 은평구 불광1동

황동조 · 상주시 함창읍

서효순 · 종로구 동숭동

문성만 · 서대문구 창천동

임석현, 박선옥 · 인천시 송의4동

이기환, 홍숙영 · 중랑구 면목동



양심수들이 새해연하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안동) 김용태(광주) 김은환(대전) 김익진(대전) 김익현(대전) 김인수(대전)
 김장호(대구) 김정묵(대구) 김태룡(대전) 김효섭(전주) 류정식(안동) 리정찬(광주)
 문철태(전주) 박동운(대구) 박수관(대구) 박완규(대전) 박찬우(광주) 석달윤(전주)
 손유형(전주) 안영기(대전) 양정호(대전) 오형식(대구) 우용각(대전) 이공순(광주)
 이상철(광주) 이장형(안동) 이재룡(광주) 장병락(대전) 조상록(안동) 최선묵(대전)
 최수열(전주) 최수일(광주) 함주명(광주) 홍경선(대전) - 이상 장기수

정광훈(청주/광주전남연합의장) 박현주(의정부/광주전남연합)

양동훈(강릉/남충련 의장/조선대) 신희봉(의정부/전남대) 김재구(의정부/〃)

고광진(원주/〃) 배제섭(춘천/〃) 이영규(춘천/〃) 차익중(청주/사노맹) 남진현(청주/〃)

이은경(청주/〃) 정명섭(부산/〃) 김기수(목포/〃) 박홍순(안동/〃)

장민성(공주/노동해방문학실) 최유락(춘천/민정련) 박영희(전주/방북)

홍중희(진주/구국전위) 류낙진(대전/〃) 이영기(목포/〃) 안영민(순천/〃)

방양균(전주/서경원의원 비서관) 김미라(공주/혁신노사간) 장재열(대전/충남대활동가조직사건)

황석영(공주/방북) 황대권(대구/구미유학생 사건) 안운정(대전/독일유학생 사건)

최호경(대구/남한조선노동당) 신동욱(영등포/〃) 임인출(군산/〃) 이경섭(전주/〃) 손병선(전주/〃)

손민영(김천/〃) 양홍관(광주/〃) 심금섭(안동/〃) 조덕원(김천/〃) 정경수(원주/〃)





양심수후원회 '95 회원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9일, 서준식 씨 등 사회안전법 출소 장기수 29인이 지난 9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11월 9일 열린 재판에서 “반국가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장기수들은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으로 징역을 살다 만기출소 이후 사회안전법에 의해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1989년까지 10년~16년 동안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손해배상소송 소장에서 “법무부 장관 등이 ‘재범의 위험’을 판단, 갱신결정에 의해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다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념의 문제를 문제삼아 보안처분을 한 것은 사상,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3천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안전법은 이미 재판을 받고 만기형을 산 이들에 대한 행정관청의 판단으로 다시 보안감호처분을 하도록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지적되어 89년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번 판결에 소송당사자들은 서울고법에 항소할 예정이다.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서울지법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 씨가 낸 준항고 심리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 기재장소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씨는 지난 11월 29일,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연행, 구속되었으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인 서초경찰서가 아닌 안기부에서 계속 수사를 받아 오다가 ‘영장기재 유치장소의 변경은 불법’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준항고장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로써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밀실수사의 불법적인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검찰, 박충렬, 김태년 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서울지검 조성옥 검사는 12월 4일 박충렬, 김태년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 고무),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주로 전국연합, 범민련 등 재야단체에서 발행한 책자를 소지 탐독한 것과 김태년 씨의 경우, 지난 94년 3월 UR 반대



집회를 집회마감시간 30분을 넘겨 열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박씨 등이 안기부에 연행될 당시 안기부는 구속영장에서 “90년 일자미상경 북한에서 남파된 성명불상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국내재야운동권에서 활동하며 “기회 약정된 통신조직을 통해 불상내용의 지령을 수신하고 그 지령사항 실천결과 등을 북한공작조직에 보고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통신(국가보안법 8조) 연락하는 등 암약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부여간첩 김동식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충렬, 김태년에게 무전기를 전달하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따라 박씨 등은 김동식의 진술 외에 그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 송치 전 4일동안 변호인 접견마저 불허당한채 안기부에 의해 강압적인 고문 수사를 받았다.

93년 12월 개정된 안기부법 제3조(직무) 제3항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0조(불고지)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박씨 등이 기소된 조항은 안기부의 수사권한이 없는 영역이다.

이 사건은 앞으로 재판과정 등에서 지금까지 안기부의 수사권 남용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통신교류 첫 무죄판결

부산지법 형사1단독 정희상 판사는 11일, 국가보안법과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수산대 전총학생회장 주우열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 국가보안법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나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반포 등에 대한 잇따른 무죄판결에 이어 나온 이번 판결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이 법의 폐지 또는 개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2월에 구속된 양심수

윤대충(조선대) - 학내시위 / 집시, 폭력 12월 16일

고애순 - 범민련 관련 / 국보 12월 4일

이중범(부산경성대) - 부경총련 조통위장 / 국보 12월 11일

김중화(동아대) - 야간대 총학생회장 / 집시, 폭력 12월 2일

주윤석(현대자동차) - 분신대책위 관련 / 업방, 폭력 12월 15일

이남길 김지열 허윤범 (전주우석대) -자주대오 사건 / 국보 12월 24일



영상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기획 및 제작: 민가협 · 푸른영상

연출: 김태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종로 탑골공원 앞. 이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다. 주름살 투성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들. 이 이들은 저마다 보랏빛 수건을 쓴다.

이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자식걱정을 나누며 젊은 이의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대열을 만든다. 그리고 집회를 시작한다.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 93년부터 시작한 민가협의 목요집회는 이제 1백회를 넘어섰다.

보랏빛 수건을 쓴 어머니들 중에 유난히 연로해 보이는 분이 있다. 올해 나이 87세인 고봉희 어머니.

이 어머니도 매주 목요일이면 성남에서 발걸음을 제대로 떼기 어려운 연로한 몸을 이끌고 종로행 버스에 오른다. 그리고 탑골공원으로 향한다. 어머니는 29년째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아들 신인영(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무기수 67세)을 그리워 한다.

85년 구미 유학생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3년여 사형수생활을 겪었던 김성만(88년 무기형으로 감형 40세)의 어머니는 3년동안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뛰어다녔다. 무기수로 감형되자 긴장이 풀려서인지 수도 없이 병원신세를 져야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탑골공원을 향한다.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세)씨. 그는 51년 체포되어 95년 8월 15일 특사로 석방되기까지 45년을 독방에 구금되었다. 45년 영어의 세월동안 그가 간절하게 기다려온 소망은 살아서 어머니를 만나는 것.

마침내 김선명은 95년 8월 31일, 45년 만에 구순의 어머니(홍우숙)를 만나게 된다. 노환으로 앞이 안 보이는 어머니는 4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들을 알아보고 “마음에는 늘 네가 환하게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감격적인 모자상봉은 25분 만에 끝이 났다. 오랫동안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김선명의 가족들이 아직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고봉희, 최인화, 홍우숙 등 굴절

된 한국현대사의 비극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양심수의 어머니들의 눈물과 아픔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다. 이 짧은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어머니들은 각각 조금씩은 다른 사연들이지만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는 400여 양심수 어머니들의 전형이고 분단과 불의한 정권이 만들어낸 수만 명 양심수의 어머니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어머니들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의 문제, 고문, 교도소 인권실상,公安수사기구의 인권침해 등 한국의 인권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선명, 홍우숙 모자 상봉장면은 이들의 건강 상태를 염려해 방송카메라 등 기자들의 촬영을 제한한 상태에서 이뤄져 유일하게 촬영된 장면을 이 다큐멘터리에 담게 되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코스타가브라스 감독이 김성만 석방을 요구하는 영상이 실렸다.

85년 12월 12일에 창립한 민가협이 10주년을 맞았다. 이 다큐멘터리는 창립 10주년에 완성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93년 시작한 목요집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을 비롯해 올해 8월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을 위한 캠페인(명동성당)’ 등의 현장을 담고 있다. 특히 변호사, 의사, 소설가, 종교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양심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0. 75평 모형 감옥에서 한 하루 감옥체험 등 인상적인 장면을 담고 있다.

그러나 48분으로는 양심수 어머니들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투쟁을 다 담을 수 없었다. 93년부터 촬영을 시작하였고 올해 3월 구체적인 기획에 들어가 10달 동안 양심수 어머니들과 부대끼며 활동현장 곳곳을 백여개의 테이프에 담아왔지만 그 중 48분 분량으로 편집한 것이다.

아쉬운 점이 많다. 소박하게나마 양심수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권현실을 담고자 했다.

비디오를 보고 싶으신 분은 사무실(763-2606)로 연락주세요.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45년동안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을 뒤로하고
세계 1위, 2위, 3위 최장기수가 세상 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3분 장기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기쁘기보다는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여전히
감옥안에는 400여명의 양심수와
이름만 바뀐 '세계최장기수'가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3,40년동안 녹슬어 있는 빗장은 우리들
양심의 녹슬음이 아닐까요

모든 양심수가 옥문을 활짝 열고
사람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일
이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사람손길 닿지 않고
햇빛 한점 자유롭게 맛볼 수 없는 분들에게
창살 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것입니다.

양심수 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협	053-01-112692 (권오현양심수)
지로번호	7619407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종로구 창신 2동 592-7	
Tel, 763-2606 Fax, 745-5604	